

# 美 텍사스 롱뷰 매료시킨 '구앙 스님'

### 유치원서 한자·동화 가르치고 성인들에게 '걷기 명상' 지도

미국 텍사스 주의 도시 롱뷰(Longview)에서 젊은 중국인 스님의 활동에 벽안의 지역 주민의 관심이 움직이고 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지는 “중국 라오둥반도 남단부에 있는 다련(Dalian)에서 온 구앙(Yin Guang · 29) 스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롱뷰 지역 주민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전하고, “구앙 스님이 롱뷰에서 중국불교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지는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롱뷰의 지역 주민에게서도 불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미국인을 좋아한다”는 구앙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지난해 가을 스승인 후이(Yi Hui) 스님과 함께 롱뷰를 처음 방문한 구앙 스님은 스승의 출국 뒤에도 홀로 남아 롱뷰 지역의 중국불교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벽안의 지역 주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앙 스님은 롱뷰에 남아 중국불교를 알리겠다는 뜻을 스승 후이 스님에게 간청했다”고 전한 웬디안(Wendy Yan) 씨는 “구앙 스님의 서원이 실현되는데 롱뷰의 중국불교 공동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스님은 현재 지역 중국불교 공동체의 법회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 미취학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청소년 이상 성인들에



미국 텍사스에서 중국인 구앙 스님이 현지인들에게 걷기 명상 등을 통해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롱뷰 공립유치원 계약직 교사로서 있는 스님은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중국 옛 우화를 들려준다.

게 ‘걷기 명상’을 가르치는 등 벽안의 불심을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롱뷰 중국불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웬디안 씨는 중국불교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후이 스님을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해 왔다. 후이 스님의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해 12월 롱뷰 외곽에 개원한 지관(Zhi Guan) 명상원에 머물며 일요일마다 중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관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 구앙 스님은 “롱뷰 중국불교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데 작은 힘이라도 더하는 게 스승의 당부였다”며 “그

과정에서 영주권도 획득해, 벽안의 지역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불성을 심어줄 수 있기를 서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지에 따르면 구앙 스님은 현재 중국불교 공동체의 도움에 힘입어 롱뷰 공립유치원 계약직 교사로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한편 중국 옛 우화를 들려주고 있다.

유치원생 벨라(Bella · 5)의 어머니 베키(Becky Schneibel) 씨는 “벨라가 ‘노란 승복에 착박한 구앙 스님’을 무척 따른다”며 “특히 스님이 들려주고 난 씨가 통역해주

는 중국의 옛 우화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마델린(Madeline · 6)의 어머니 팜 라이트(Pam Wright) 씨는 “마델린은 한자를 배우는 것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한자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앙 스님의 열정이 있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앙 스님은 롱뷰 공공도서관 측에 문화 강좌로써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 진행하고 있다’고 《데일리 뉴스 온라인》지는 전했다.

걷기 명상은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공공도서관 강단을 거닐며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걷기 명상 도중에는 보폭도 크지 않고, 철저히 묵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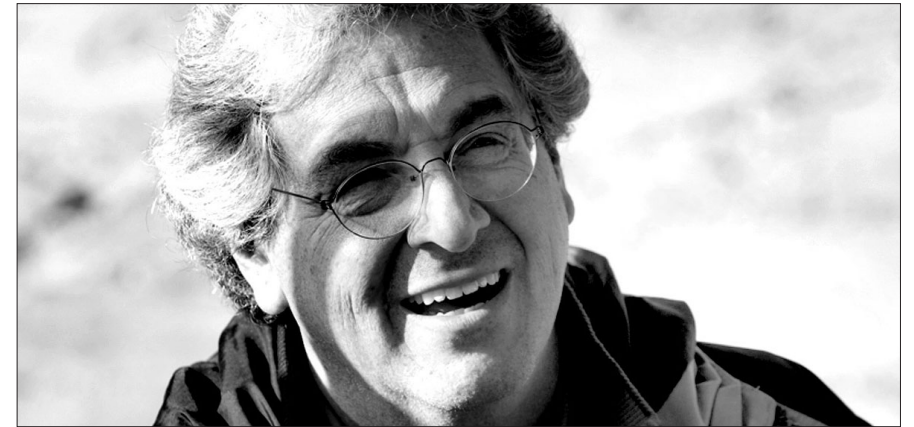
《데일리 뉴스 온라인》지는 “우리는 걷기 명상을 하는 동안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강변의 숲길을 걷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라는 참여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걷기 명상’은 롱뷰 지역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명상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앙 스님의 활동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등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웬디안 씨는 “구앙 스님의 존재는 롱뷰 중국불교 공동체는 물론 지역 사회에 큰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배우 해롤드 래미스, 美 코미디계 ‘붓다’

### ‘고스트 버스터즈’ ‘사랑의 블랙홀’ 대표작...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의 해롤드 래미스(Harold Ramis, 1944~2014). 2월 24일 별세했다.

지난 2월 24일 별세한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의 해롤드 래미스(Harold Ramis, 1944~2014)가 불교신자였던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huffingtonpost.com)는 3월 12일(현지시간) “해롤드 래미스는 항상 포켓사이즈의 불교가이드를 가지고 다닌 정도로 불교적인 사람(Buddhist)이었다”고 전했다.

해롤드 래미스는 생전에 ‘광란의 골프장(Caddyshack 1980 · 1988)’, ‘괴짜들의 병영일지(Stripes · 1981)’, ‘고스트버스터즈(Ghostbusters 1984 · 1989)’, ‘애널리스트 디스(Analyze This · 1999)’, ‘일곱가지 유혹(Bedazzled · 2000)’, ‘애널리스트 댓(Analyze That · 2002)’ 등 다수의 시나리오를 쓴 감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불교에 매료됐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해롤드 래미스는 생전에 ‘광란의 골프장(Caddyshack 1980 · 1988)’, ‘괴짜들의 병영일지(Stripes · 1981)’, ‘고스트버스터즈(Ghostbusters 1984 · 1989)’, ‘애널리스트 디스(Analyze This · 1999)’, ‘일곱가지 유혹(Bedazzled · 2000)’, ‘애널리스트 댓(Analyze That · 2002)’ 등 다수의 시나리오를 쓴 감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불교에 매료됐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허핑턴포스트는 해롤드 래미스를 ‘코미디의 부처(Buddha of Comedy)’라 칭하며 “시카고 태생인 그는 어디든 갈 때마다 포켓사이즈의 불교입문서를 들고 다녔다. 심지어 그는 ‘5분 불자(5 Minute Buddhist)’를 복사해 가지고 다니며 영화 감독인 주드 아파토우(Judd Apatow) 등 그의 동료들에게 전해줬다”고 보도했다.

해롤드 래미스가 별세한 2월 말 레드40 엔터테인먼트(Red40 Entertainment)의 토드 쿤스(Todd Kuhns)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불교입문서를 PDF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토드 쿤스가 제작한 불교입문서는 해롤드 래미스가 2009년 삼발라 선에 온라인용으로 만든 버전을 복사한 것이다.

해롤드 래미스는 불교입문서를 제작하면서 “이 입문서는 쉽고 간단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중국 테이크아웃 메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제작했다”고 삼발라 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가 제작한 입문서에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 푸른 대지 위를 걷는 것.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이다”와 같은 탁날한 스님의 법문도 담겨져 있다.

유대인인 해롤드 래미스는 선 불교에 대해 “불교는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갑옷과 같다”며 “불교는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내가 온전히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트러블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런 그의 심심은 아내인 에리카 만 래미스(Erica Mann Ramis)와 장모에게도 전해져, 그들이 불교 명상센터에서 생활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해롤드 래미스의 불교적 사상은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앤디 맥도웰과 빌 머레이가 주연한 영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 1992)이 그렇다. 자기 중심적이고 시니컬한 주인공 필 코너스(빌 머레이)는 자신에게만 시간이 반복되는 마법에 걸려 매일 하루를 반복되며 산다. 끝없이 반복되는 같은 날에 미칠 것 같은 필 코너스는 돈을 훔치고, 여자를 유혹하고, 자살도 해보지만 항상 같은 날 새벽 6시에 눈을 뜬다. 결국 그는 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한다. 나무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기도가 막힌 아저씨를 응급조치 하는 등 매일 같은 행동을 하지만 행위의 주체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느끼고 반복되는 삶에서 의미를 창조한다. 결국 주인공은 영원한 반복을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루의 의미를 완성한 날 영원할 것 같던 하루는 끝나고 유희의 굴레에서 벗어 나게 된다.

해롤드 래미스는 2008년 시카고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불교신자(Buddhist)가 아닌 ‘불교적인 사람(Buddh-ish)’라고 농담조로 말하면서, 불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불교의 핵심신념은 ‘믿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불교 기본서인 ‘붓다의 가르침(What the Buddha Taught)’을 읽고 나는 ‘아 그거 말 되네’라고 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불교는 간단 명료하고 믿음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종교라는 점에서 존중할 만하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하지 않고 개종했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 중국 소림사, 백두산에 사찰 건립 검토

### 스용신 방장, 3월 11일 백두산 관리위원회와 논의

최근 상업화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 소림사가 백두산 지역에 사찰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길림신문망(吉林新聞網)은 3월 12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인 스용신(釋永信) 소림사 방장은 11일 베이징에서 창바이산(長白山 · 백두산의 중국명)관리위원회 세종연(謝忠岩) 주임과 만나 백두산에 불교 사찰을 건립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세 주임은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 현황과 사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스용신에게 “백두산 사찰의 방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용신 방장은 이에 대해 “백두산에 동(東)소림, 북(北)관음에 해당하는 사찰을 건립해 불교성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교의 도리를 선양하고 백두산 문화를 발전시

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백두산을 시찰해 사찰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망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북방 소수민족들과 정나라가 여러 차례 백두산 기슭에 사찰을 세웠지만 전쟁으로 모두 파괴됐고 중화민국 초기에 세워진 승덕사(崇德寺) 역시 문화혁명 기간에 헐렸다”고 전했다.

또 현재 중국의 푸타(普陀, 쓰안(三亞), 시짱(西藏)에 각각 동 · 남 · 서 3대 관음기도 도량이 있고 허남성 봉산(嵩山)과 푸젠성에 북 · 남 소림이 있어 백두산이 북관을, 동소림 사찰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쿵후(功夫)의 발원지인 소림사는 496년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달마(達磨)대사가 530년부터



중국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 무술학교 스님들이 무술시범을 보이고 있다.

9년간 좌선해 선종(禪宗) 불교의 기원지가 됐다.

소림사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쿵후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으로 수익 사업을 확장, 최근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나 기자 oasis1963@hyunbul.com

#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에게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에게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10-3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 자성주(自性珠)를 아시나요?

화장(火葬)된 고인의 유골을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섞지않고 섭씨 2,3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자성주(자성사리)입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자성주(자성사리)로 하여 종교시설 및 납골당 가정에 모실수 있습니다.

**자성주 결정체의 특징**

자성주로 모시면 질투된 묘자리 또는 화장된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어 좋은 인연을 이루어줍니다.

**NAVER**  
자 성 주  
네이버 검색  
.....  
납골당 분양 및  
지사지국 모집

(주) 보은의 사랑  
010-3679-1080, 1899-1042

# 반드시 발복 흥성하는 혈맥생기터

혈맥터는 천년지기가자 보궁이다!

물은 강길따라 흘러 바다를 살리고, 산은 맥따라 혈맥터 사람을 구하는 도다!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태극상)
- 맥과혈 짝어내는 비술득통 (백점백혈)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전수

- 흥망성쇠좌우 터 길흉감정
- 명당혈맥터 확보 인연점지
- ▶ 절암자, 주택산장, 사업장, 묘지, 가족납골수목장 등

명당은 반드시 3-5년 안에 발복되어야 진혈이다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합니다.

지장법사 휴담  
010-4600-7399